



F1대회 성공해야 J 프로젝트 순항

전남 도약 이끌 선도 사업 정부 지원·특별법 급하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전남 서남해안 일대를 동아시아 최고의 관광레저 도시로 조성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건설의 선도사업이다.

F1대회는 J프로젝트의 다양한 사업 중 고용유발과 취업유발, 관광 효과 등 경제파급 효과가 전남은 물론 국가 전역에 미치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 개최해야 한다.

F1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F1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과제와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다.

◇정부 지원 F1대회 성공·위상과 직결=F1대회는 주최의 유형에 따라 정부주도, 자치단체주도, 민간합작운영, 민간운영 등의 형태가 있다. 주최자는 상이 하더라도 성공한 F1대회는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관합작운영 형태로 전남도가 2010년 개최하는 F1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지난 달 막을 내린 2008 F1말레이시아 그랑프리 대회는 외국인 관광객 10여만을 포함, 23만여명의 관중을 끌어 모으고, 매년 1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가 개최권(2010년~2016년, 이후 연장개최 가능)을 확보한 2010년 F1대회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데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F1대회는 유치 과정에서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최권료 전액과 경주장 건설비(8천만 달러)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SOC 건설에도 자금을 조달하는 등 국가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성

공적인 개최가 가능했다. 말레이시아가 정부 주도로 F1대회를 추진한 것은 이 대회가 국가 신인도와 지명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적인 마케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최 10년째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지원 규모는 최소화되고 현재는 자동차, 광고회사 등을 비롯한 많은 민간기업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동일한 민간합작운영 형태로 유명한 모나코 F1대회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해 국가모터스포츠 기구가 직접 대회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나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안 발의 또한 지난 17대 국회처럼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 모양새를 갖춰 한나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6~7월, 또는 10월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여수를 방문했을 때 대선공약으로 F1특별법 조기제정과 F1대회 적극 지원 의지를 밝혔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F1특별법 제정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고용·관광 파급 효과

국가 전역 미치는 대형사업

전남도 6월 국회 통과 총력

영암 삼호 경주장 공정 14%

◇경주장 건설 14%=영암군 삼호읍 간척지 1천 853km에 건설되고 있는 F1경주장은 현재 연약지반 처리공사가 진행 중이며, 전체 공정 중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경주장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공정 가운데 하나인 연약지반 처리공정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각종 신공법을 도입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에는 연약지반 처리장비인 GCP 3대와 PBD 2대가 투입됐으며, 시공사는 오는 9~10월까지 연약지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로개설과 그랜드스탠드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9년 4월까지 땅을 다지는 작업도 끝낼 방침이다.

경주장은 건설 공정률과 진척 상황 등을 감안하면 대회 개최 6개월 전인 2010년 4월까지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레이싱 트랙과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립함과 동시에 산업단지를 유치했으며, 터키는 중앙정부가 2천700만달러를 지원했다.

◇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전남도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확정시킴과 동시에 지난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F1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5월 중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법안을 최종 수정한 뒤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소관 상임위원 문화관광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상정

오는 2010년 4월 준공 목표로 현재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영암읍 삼호읍 F1 경기장 건설현장.



www.yonsei.or.kr

광주연대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환자에게 감동하는 병원
지역민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병원대우선 지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광주연대병원

진료과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치과
진료과 진단영상의학과 / 영상의학과 / 물리치료과 / 재활운동치료과
진료과 피부과 / 천식과 / 천식예방과 / 천식교육과 / 천식연구과
진료과 천식예방과 / 천식교육과 / 천식연구과 / 천식연구과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로 100-1 (동산동) | 전화: 061-270-5000 ~ 5011
 팩스: 061-270-5001 | 홈페이지: www.yonsei.or.kr